

효과가 확실히 검증된 주방 꿀팁들

채소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법, 눈물 흘리지 않고 양파 써는 법, 오프너 없이 와인 따는 법 등 당장 쓰지 않아도 알아두면 매우 유용한 팁들이 있다. 다음은 주방에서 요긴한 꿀팁들이다.

1. 삶은 달걀 껌질 까기



삶은 달걀 껌질을 깔끔하고 쉽게 까는 방법이 있다. 물에 삶은 달걀을 곧바로 차가운 얼음물에 풍덩 담그고 몇 분 기다린다. 온도 차로 인해 달걀 껌질에 미세한 금이 생겨, 으스러지지 않고 쉽게 벗겨진다.

단, 달걀을 당장 먹을 게 아니라면 이 방법은 삼가는 게 좋다. 이미 껌질 전체에 금이 간 상태라 신선한 상태로 보관이 어렵기 때문이다.

2. 와인병 따기



모처럼 훌륭한 와인을 한 병 선물 받았는데 병따개가 없다면? 이가 없으면 잇몸을 쓰라는 말이 있듯이, 집에 있는 연장을 총동원해 어찌어찌 열 수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집이 아닌 장소에서 딱히 쓸만한 도구도 없을 때이다. 이럴 때는 와인병을 신발에 넣거나 수건으로 밑부분을 감싸고 힘있게 바닥이나 벽에 한 두 번 내려친다. 코르크가 힘에 밀려 어느 정도 밖으로 나오면 손으로 잡고 당겨 빼내면 된다.

3. 마늘 껌질 까기

마늘 껌질 까는 것은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다. 하지

만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 유리병에 마늘을 넣고 뚜껑을 닫은 뒤 있는 힘껏 흔들어 준다. 마을을 유리병에 넣기 전 마늘 뿌리 부분을 미리 잘라주어야 한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마늘이 필요할 때 유용한 팁이다.

4. 사과 갈변 방지



사과를 깎아두면 금방 갈변하고 맙니다. 이럴 땐 레몬즙을 자른 단면에 발라두면 색이 변하지 않는다.

5. 아이스크림 보관



아이스크림 통 뚜껑을 닫고, 지퍼백에 넣어 밀봉한다. 이렇게 보관하면 냉동실 냄새가 아이스크림에 배지 않는다. 또한, 아이스크림이 광광 얼지 않고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해 언제나 감미로운 맛을 즐길 수 있다.

6. 얼음 대용 아이디어



라즈베리나 포도알 같은 과일을 얼려두면 칵테일이

나 각종 음료수에 얼음 대용으로 그만이다. 얼음이 녹으며 음료수 맛을 맴맴하게 하는 일도 없죠. 잔에 담아내면 보기에도 멋음직하니 예쁘다.

7. 생 바질 보관

마트에서 파는 생 바질은 몇 번 쓰기도 전에 금방 시들고 만다. 이런 팬 줄기를 다듬은 바질을 물이 든 유리병에 꽂은 뒤 비닐봉지로 전체를 느슨하게 쇠워 실온에 보관한다. 창문가에 둘 팬 남향은 피하시고, 먹을 팬 큰 잎사귀부터 따 먹는다.

8. 바나나 신선 보관



바나나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신선함이 오래간다. 껌질은 완전히 까매져도 과육은 냉장고에 넣은 날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단, 바나나 특유의 냄새가 냉장고 전체에 퍼지면 다른 음식물에 배일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9. 눈물 흘리지 않고 양파 썰기



양파만 도마에 올리면 매운 가스가 올라와 눈을 자극한다. 이럴 땐 물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썰기 전, 양파와 칼과 도마를 모두 물에 한 번 담갔다가 시작한다. 또 물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썰면 물이 양파의 매운 가스 성분을 차단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준다.

사진=thetip.kr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www.myevergreenschool.com

“에버그린 프리스쿨 입니다”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

evergreen
PRESCHOOL-KINDERGARTEN
SINCE 2012